

장성군 ‘청운지하차도’ 건설사업 난항

5년간 최대 500억 소요…군 “노후 청운고가 대책마련 서둘러야”
군의회 “재정 부담·위치 선정 부적절” 이유로 설계비 전액 부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진전을 보이던 장성군의 ‘청운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의회가 추
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운지하차도 실시
설계비 전액을 부결해 사업 추진에 차질
을 빚고 있다.

군은 장성읍을 가로지르며 뻗어있는 호
남선 철도가 동·서부를 단절시켜 지역발전
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대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실제로 호남선 철도에 따른 교통단절은
서부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장성을 지역민의 몇 안되는 통로인
청운고가와 청운지하차도를 개선해야한다
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청운고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에 완료했다.

군은 현재 교통량 조사와 미래 교통량
예측을 바탕으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
운지하차도 설치 위치와 양방향 입체통행
방식 도입 등 건립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예산 공사 소요기간은 5년, 예산은 300
억원에서 최고 50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장성군의회에서는 “군 재정
에 부담이 되고, 위치 선정이 적절치 않다”
는 이유를 들어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13억원을 전액 부결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사업비를
370억원으로 잡고 5년 간 연차적으로 사업
을 추진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국비 80억

원을 확보해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마련해 사업을 제안했는데 실시설계
비가 부결돼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된지 30년이 경과된 청운
고가는 노후도가 심각해 교통량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남아있는 사용
기한조차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청
운고가차도 철거 등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민 사이에서는 장성의 미
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청운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잃지 말고 진행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을 주민 A씨는 “행정부와 의회가 이
견이 있어 장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 청운지하차도 건설이 추
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민의 행복과 장성의 더 나은 미래를 위
해 군 행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합
치된 의견을 내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차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청운지하차도 전경. 건너편 건물이 중보 들에서 바라본 장성군청의 모습이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연내 출범한다

농업인 권익 대변 민간기구…회원모집 11월 창립총회

담양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
변할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올해 연말 출
범할 예정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8일 고서면
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군 농업회의소 설립
을 위해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회원모

집을 하고 있다.

군 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
단체 등을 아우르는 대표 조직으로, 담양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 이익을 대
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다.

군은 지난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의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 3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군은 다음달 말까지 회원 모집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11월 창립총회
를 거쳐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임원진
과 대의원을 선출한 뒤 연내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2월 ‘담양군농업
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농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
구로 대표성을 띠고 이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군 농업회의소는 농민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관리, 지속 가능한 농정시스템 구축,
담양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정책 연구와 조정 업무를 담당
하게 된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전국에 15개소가 설
립 운영 중이며, 담양군을 포함해 9월 신규
선정된 5개 시·군 등 총 18개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군, 농업인 미세먼지 관련 건강검진 실시

담양군이 지난 24일 농촌진흥청과 함께
2019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농업인의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한
양대, 대구가톨릭대와 함께 담양군농업기
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관찰되는
날이 늘면서 장시간 야외 작업으로 일반인
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농업
인에 대한 연구와 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날 건강검진에서는 농업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에
따른 알레르기 증상, 혈중 면역기계 지표,
폐활량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한편 담양군은 지역 2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 농업인 미세먼지
대처 요령,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PLS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
물 생산과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장성군, 농업인 위한 ‘실용교육’ 호평

장성군이 농업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1~2
월에 읍면을 순회하며 새해 영농계획 수
립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
진하고 있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

또 군은 지난달에 교육생들의 수요를 반
영해 ‘다수확 콩 재배기술 교육’과 ‘병해충

종합방제 교육’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보
다 많은 농업인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넓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농
업인들이 스스로 교육을 편성·운영하는
‘농업인 특목 교육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
으며 ‘농업응드론 자격증반 및 소형농기계
면허증반 교육’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수만리 생태숲공원 ‘최우수상’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상…벚나무·철쭉 등 힐링명소

화순을 수만리 생태숲공원(사진)이
제4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상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4회를 맞는 친환경 디자인상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업을 평가하는 상
이다.

친환경적 요소, 이용자의 활용도, 공간
조성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 구성,
소재, 색채 등을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합
산해 순위를 매긴다.

수만리 생태숲공원은 화순군의 대표적
인 도시 근린공원으로 기존 자연경관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조성한 공원
이다.

봄 개화기에는 벚나무 가로수와 수십

만 주의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이면
울창한 녹음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가을에는 오색단풍이 어우러져 공원
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오감 만족을 제
공하는 전국적인 힐링 명소로 자리 잡
았다.

군은 산림청 주관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의료연계형 산림 치유
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요
소를 살려 공원을 관리하고 군민이 건강
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화순경찰, 부착식 경광등 ‘고인돌 등댓불’ 활용

급증하는 치안수요 대비 범죄예방 활동 ‘눈길’

화순경찰서가 부착식 경광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
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늘어나는 치안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자석으로 부착 가능한
LED 경광등인 ‘고인돌 등댓불’을 이용
한 탄력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경찰청은 지역에서 많이 분포돼 있
는 ‘고인돌’의 상징성을 고려해 경광등의
이름을 ‘고인돌 등댓불’로 지었다.

지난해 112신고가 1만2578건이 접수
되는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지역 7개 파출소 모두 관서당 상시 근무
인력이 2명 이하에 불과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화순경찰청은 고인돌 등댓불을 112신고
접수가 많은 곳, 여성안심 귀갓길, 농산
물 보관장고 또는 가족 집단사육농가 등
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고인돌 등댓불은 범죄 취약시간대와

우범 지역 주변에 일시 부착해 순찰활동
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주민들이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
과도 거두고 있다.

경찰은 근무 때마다 이동하면서 등댓
불을 부착하고 10분여 간 주변을 순찰한
다.

다음날 오전 순찰자는 앞선 근무자가
부착한 등댓불을 수거하면서 다시 낮시
간대 방범 순찰활동을 펼친다.

2순위 부착 장소 주변은 3~4개 권역으
로 나눠 1~2시간 마다 권역별 이동 순찰
을 벌이고 여성·학생의 안심귀가를 지원
한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건조·보관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며 “고인돌 등댓불
을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해 범죄로부
터 안전한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감성으로 노란꽃잔치를 표현하다

전국 문불여백일장

가을, 꽃, 산, 들, 강 이러한 자연들이 문학을 하는 문인들에게 최상의 소재가 되는데
우리 장성의 가을노란꽃잔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글쓰기 아주 좋은 여건을 형성해 줍니다.
전국의 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황룡강가에 모여서 글을 쓴다면,
우리 장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10월 5일(토) 10:00

장소 : 황룡강 공설운동장 옆 작은무대(소공연장)

주 제 : 엘로우시티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장성과 관계되는 작품

분 량 : 운문-12행 이상, 산문-원고지 3매 이상

시 상 : 학생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일반부 부문 -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3명, 장려 5명
 ※ 상금 :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접 수 : ws36910@hanmail.net 문 의 : 061-394-5500, 010-3605-3597